

1960년대 유토피아의 지향과 균열 『완전사회』*

최 애 순**

요약

『완전사회』는 과학소설 독자들에게 재미있게 읽히는 면모보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선점하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논쟁의 산물로 기능한다. 1960년대 본격문학과 장르문학, 성인문학과 아동·청소년 문학이라는 대립 논쟁의 틈바구니에 끼인 과정의 산물이자 표상이라 볼 수 있다. 『완전사회』는 작품 내용과는 별개로 작품 자체가 불러온 ‘본격’ 혹은 ‘최초’의 논쟁에 휩싸여서 그 자체로 1960년대 남한의 대립 사회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82년생 김지영』이 소설 내용보다 이 소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페미니즘 담론을 통해 한 시대를 대변했다면, 『완전사회』 역시 이 소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본격과 최초의 논쟁과 과학소설 및 페미니즘 담론을 통해 1960년대 대립 구도의 사회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완전사회』는 이 작품을 둘러싼 대립 논쟁과 작품 안에서 제시된 미래 대립 사회를 통해 1960년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상과 비정상, 건강과 허약, 건전과 불량 등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점철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과학소설사에서 『완전사회』는 해방 이후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장르문학)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얼마나 견고했었는지를 온몸을 불살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윤성의 『완전사회』 이후 한국에서 창작 SF의 등장은 북거일의 대체역사 소설 『비명을 찾아서』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북거일의 『비명을 찾아서』가 낯선 독법임에도 발표되자마자 문단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달리, 문윤성의 『완전사회』는 문단에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이처럼 『완전사회』는 작품 자체로 본격문단과 장르문학과의 대립을 보여줌으로써, 당대 사회에 만연했던 대립과 갈

* 이 논문은 2020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타블라라사 칼리지 조교수

등의 꼴을 증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작품 내에서도 당대 사회에 만연한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대안 방식의 하나로 제시되는 유토피아 역시 해결이 아님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문운성은 국민 만들기로 제시되는 ‘표준’, ‘정상’이라는 수치에 맞추어 경계를 나누고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기 위해 구축하고자 한 완전사회가 언제 균열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임을 남성과 여성의 극단적인 대립 알레고리로 보여준다.

유토피아 소설은 늘 그렇듯 현실비판이나 현실부정을 딛고 탄생한다. 그러나 여인공화국이 진정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불완전한 독재 시스템으로 성적 욕망을 국가가 통제하는 최악의 법으로 유지되는 사회라는 디스토피아적 시선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토피아가 모든 이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완전사회』는 유토피아가 누군가의 욕망이나 정치적 의도를 담보로 또 다른 누군가의 욕망은 배제한 채 건설된다는 의미에서, 이미 균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본질을 안고 있음을 짚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완전사회』, 이상사회, 미래, 유토피아, 여인공화국, 신체검사, 몸, 통제, 사회 대립

목차

1. 서론
2. 유토피아 소설의 개념과 전제 조건
3. 1960년대 미·소 냉전 하의 『완전사회』의 강요된 남성성과 국가의 신체 기획
4. 완전인간 남성 우선주의 염원과 미래 여인공화국의 유토피아 지향
5. 완전사회 여인공화국의 신체 통제와 유토피아의 균열
6. 결론: 유토피아의 현실비판과 인간의 사회개혁 의지

1. 서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급부상했다. 더

불어 미래 이상향에 대한 갈망과 함께 현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유토피아’도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¹⁾ 유토피아 소설은 주로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위기에 봉착할 때, 감정의 표출이 억압되고 짓눌릴 때, 출현하곤 한다. 식민지시기 1920년대 미래과학소설이나 1930년대 농촌계몽소설을 통해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꿈꾸었다면, 1960년대 문윤성의 『완전사회』도 정상, 표준, 규격, 건강 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의 억압된 감정이 ‘유토피아’를 구현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미래의 유토피아를 그리고자 했던 완전사회에 대한 열망은 1970년대 이청준의 ‘소록도 섬’의 이상사회나 ‘이어도’의 낙원(파라다이스) 구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1960~1970년대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이상사회 구현을 위한 갈망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960~1960년대 사회의 갈등을 불러 일으킨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이상사회에 대한 갈망은 현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클수록 증폭된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미래’를 고민하고 ‘유토피아’를 갈망하는 것은, 현 사회가 남성/여성 혐오, 노인 혐오 등으로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문윤성이 남녀의 대립으로 성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공상했던 미래사회는, 무기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남녀 혹은 세대 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다름없다. 1965년 문윤성은 이미 이분법적 대립으로 양극화된 사회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 올렸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²⁾ 문윤성이 1965년 경고했던 대로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유토피아 공화국을 꿈꾸는 것일까. 코로나 이후 2020년대 들

1)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829777.html> 손현주, 「지금 다시 ‘유토피아’를 상상해야 하는 이유」, 『한겨레』 미래&과학, 2018.1.29.

2) 문윤성은 『주간한국』 추리소설 공모전 당선작 『완전사회』 이후로도 여러 추리소설 관련 혹은 유토피아 관련 소설을 더 썼지만, 본격 문단에서 그의 작품이나 작가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대중잡지나 대중일간지에 실렸던 그의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격 문단으로부터 소외됐다고 볼 수 있다.

어서 연구자들도 유토피아 소설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어슐러 르 권이나 마지 피어시 등의 작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2018년 아작에서 단행본으로 재출간된 문윤성의 『완전사회』도 유토피아 소설로 거론되고 있다.

『완전사회』는 SF 연구자들이 ‘한국 최초 본격 SF’임을 강조하여,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³⁾ 그전까지는 문단의 주류에서 밀려난 잊혀진 작품이었으나 장르문학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주목받기 시작한 작품이다. 『완전사회』는 국내에서 보기 드물고 낮은 배경의 작품이기도 하면서, 성인 대상으로 한 SF가 거의 없는 국내에서 SF 논의의 체면을 세워주는 유일한 작품이기도 했다. 2018년 아작에서 출간한 『완전사회』는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장르명과 ‘한국 최초의 본격 SF 장편소설’이라는 홍보 문구가 함께 달린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아동·청소년 SF에 내주지 않으려는 자리다툼의 치열한 경쟁을 엿볼 수 있다. 『완전사회』 내에서의 남녀 대립 사회가 이 책을 둘러싼 연구 담론의 대립 논쟁으로 변진 것이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완전사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대립적인 시각으로 양분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두고 벌인 성인과 아동·청소년 영역의 경쟁은, 본격문학과 장르문학의 자리다툼이었으며, 리얼리즘과 환상문학의 논쟁이기도 했다. ‘본격’이라는 용어는 본격문학과 장르문학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가, 다시 성인 SF와 아동·청소년 SF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 SF는 본격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관점에서부터 오랫동안 ‘과학소설은 아동·청소년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관습을 엿볼 수 있다. 『완전사회』가 추리소설 공모 당선작임을 떠올려보면, 성인 잡지에서 과학소설 공모전이나 과학소설 게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소준선,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국내 최초의 장편 SF 『완전사회』의 저자 문윤성」, 『SF매거진』 창간호, 1993; 이정옥,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로 떠난 모험여행의 서사-문윤성의 『완전사회론』」,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139-164면.

그런 과학소설의 인식과 전통에서 뒤늦게 SF 연구자들의 최초 자리를 선점하려는 욕망이 투사된 『완전사회』에 ‘본격’이란 타이틀을 부치고 더불어 아동·청소년 SF에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주지 않으려는 예기치 않은 자리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이처럼 『완전사회』는 당대 혹은 현재 과학소설 독자들에게 재미있게 읽힘으로써 자리하는 면모보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선점하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논쟁의 산물로 기능한다. 1960년대 본격문학 학과 장르문학, 성인 문학과 아동·청소년 문학이라는 대립 논쟁의 틈바구니에 끼인 과정의 산물이자 표상이라 볼 수 있다. 『완전사회』는 작품 내용과는 별개로 작품 자체가 불러온 ‘본격’ 혹은 ‘최초’의 논쟁에 휩싸여서 그 자체로 1960년대 남한의 대립 사회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82년생 김지영』이 소설 내용보다 이 소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페미니즘 담론을 통해 한 시대를 대변했다면, 『완전사회』 역시 이 소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본격과 최초의 논쟁과 과학소설 및 페미니즘 담론을 통해 1960년대 대립 구도의 사회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완전사회』는 이 작품을 둘러싼 대립 논쟁과 작품 안에서 제시된 미래 대립 사회를 통해 1960년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상과 비정상, 건강과 허약, 건전과 불량 등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점철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한국 과학소설사에서 『완전사회』는 해방 이후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장르문학)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얼마나 견고했었는지를 온몸을 불살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윤성의 『완전사회』 이후 한국에서 창작 SF의 등장은 북거일의 대체역사소설 『비명을 찾아서』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북거일의 『비명을 찾아서』가 낯선 독법임에도 발표되자마자 문단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달리, 문윤성의 『완전사회』는 공모전 당선 당시의 심사평 이외에 문단에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북거일이 문단을 통해 등단하고 활동한 것과 문윤성이 『주간한국』이라는 대중지의 ‘추리소설 공모작’을 통해 발표되었다는 점이 같은 SF임에도 관심의 유무를 달리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완전사회』는 작품 자체로 본격문단과 장르문학과와의 대립을 보여줌으로써, 당대 사회에 만연했던 대립과 갈등의 골을 증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작품을 둘러싼 논쟁 못지않게 작품 내에서도 당대 사회에 만연한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윤성이 대립과 갈등의 해결로 제시하는 대안 사회인 ‘유토피아’의 본질과 전망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문윤성이 그린 유토피아는 당대 국민 만들기 기획하에 ‘표준’과 ‘정상’이라는 판정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자 열망하는 완전사회가 언제 균열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문윤성은 그 균열의 조짐을 남성과 여성의 극단적인 대립으로부터 발견했다. 극단적인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로 치닫는 상황에서 1960년대 그가 보여주었던 대립과 갈등의 한쪽 측면을 배제한 유토피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유토피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완전사회』는 1960년대 남한 사회의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다. 완전사회로 표상되는 여인들의 공화국이 완전하지 않은 것도, 미래 전쟁으로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의 대립 전쟁을 제시한 것도 극단적 대립 사회의 비유라 볼 수 있다. 손중업은 최초의 본격 과학소설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던 서구 과학소설의 틀로 평가절하하든지 간에, 『완전사회』가 소설사에서 이질적인 ‘느닷없는’ 출현이라는 평들에 공유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⁴⁾ 그는 소설 내의 미래 완전사회로 제시되는 ‘여인공화국’에 경도되어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작가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거나, 표층적인 차원에서 페미니즘이나 섹슈얼리티의 차원에서 비판하는 일은 작품의 이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한다.⁵⁾

다른 한편으로 『완전사회』를 유토피아의 관점에서 주목한 연구가 있

4) 손중업, 「문윤성의 『완전사회』와 미래의 건축술」, 『어문논집』 60, 2014.12, 240면.

5) 손중업, 「문윤성의 『완전사회』와 미래의 건축술」, 『어문논집』 60, 2014.12, 240-241면 참조.

다.⁶⁾ 그러나 유토피아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자들은 여인들의 공화국이라는 『완전사회』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불완전사회였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본 논문은 『완전사회』가 지향한 유토피아가 불완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앞서, 유토피아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완전사회』의 미래의 불완전한 사회가 작품 자체에서 그리고자 한 유토피아의 한계라기보다 그것이 유토피아의 본질이자 속성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렇게 본다면, 『완전사회』는 당대 사회 문제와 유토피아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고 반영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우리가 지향하는 유토피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이상향이고 대안인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완전사회』는 당대 사회의 대립과 갈등 문제를 담론 현장으로 가져왔으며, 새로운 유토피아 담론을 형성하였다고 본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유토피아의 다른 면을 통해 종종 이상향으로 제시되는 유토피아의 공간이 전혀 이상적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유토피아의 모순과 한계를 담론의 현장으로 끌어온다. 『완전사회』는 대립과 갈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제거하는 유토피아 소설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간의 욕망이 영원하는 유토피아란 결국 특정 누군가에게 국한되는 간헐적인 ‘섬’일 뿐임을 미래사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나환자들을 위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 했던 소록도가 ‘당신들의 천국’으로 끝났듯이 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완전사회』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이상적인 사회로 알고 있는 유토피아의 개념이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더불어 『완전사회』 내의 유토피아 사회 내의 갈등뿐만 아니라

6) 이정옥, 「페미니즘 유토피아로 떠난 모험 여행의 서사: 문운성의 『완전사회』론」,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복도훈, 「단 한 명의 남자와 모든 여자: 아마겟돈 이후의 유토피아와 섹슈얼리티」, 『한국근대문학연구』 24, 2011.10, 345-373면; 허윤, 「남자가 없다고 상상해봐 1960년대 초남성적 사회의 거울상으로서 『완전사회』」, 『민족문학사연구』 67, 2018.7, 483-509면.

미래사회로 가기 이전의 현 사회에서의 완전인간 우선구의 선발 과정에도 주목해 보고자 한다. 우선구의 선발 과정에 1960년대 당대 사회의 대립과 모순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유토피아 소설의 개념과 전제 조건

1960년대는 유토피아 소설과 함께 담론이 생성되던 시기였다. 미국에서는 급진주의 페미니즘 물결이 일어나고 이와 함께 어슐러 르 쿼의 『어둠의 왼손』을 비롯한 유토피아 소설도 창작되었다. 유토피아 소설은 1970년대까지 이어져서 마지 피어시의 『시간의 경계에 선 여자』도 이때 출간되었다. 국내에서도 문윤성의 『완전사회』(1965)가 발표된 후, 1967년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나서, 1970년대 이청준 등에 의해 유토피아 사회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다. 미·소 냉전 체제와 함께 여러 이념과 사상이 대립하던 1960~1970년대에 ‘유토피아’를 지향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던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유토피아의 지향은 현실에 대한 부정이나 비판을 전제로 하고 일어나는 욕망이기 때문이다. I

그러나 국내 유토피아 소설의 계보에서 『완전사회』가 최초는 아니다. 1920년대 에드워드 벨러미(『뒤돌아보며』, 1888)의 번역인 『이상의 신사회』와 윌리엄 모리스의 『유토피아에서 온 소식』(1890)이 국내에 유입되었고, 이에 앞서 정연규의 다시쓰기 작품 『이상촌』이 있었다.⁷⁾ 1920년대 미래의 이상사회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의 구현이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구축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욕망은 유토피아 개념에서 중요한 ‘인간의 정치적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이 의지와 노력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사회를 개혁하려는 유토피아는 무릉도원이나 파라다이스(낙원)와는 다

7) 최애순, 「1920년대 미래과학소설의 사회구조의 전환과 미래에 대한 기대: 『팔십만년후의 사회』, 『이상의 신사회』, 『이상촌』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41, 2020. 상반기, 7-51면.

르다고 볼 수 있다. 유토피아는 신의 섭리나 자연의 신비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실현된다.⁸⁾ 그런 면에서 허구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⁹⁾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거를 동경하고 복원하려는 향수나 현실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미래’ 지향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¹⁰⁾ 유토피아 소설이 종종 ‘미래’ 이상사회 건설을 그리고 있는 것은 현실개혁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문윤성의 『완전사회』도 161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1965년의 『완전사회』는 완전한 이상사회가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살아남은 비커즈 여성들이 있으니 종말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낙원으로 그려진 세계는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유토피아의 세계는 아니다. 여인들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유토피아는 샬롯 퍼킨스 길먼의 『허랜드』(1915)에서 이미 마주했던 세계이다. 미국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여인들만 사는 나라를 그린 페미니즘 유토피아의 대표적인 소설로 꼽힌다. 『완전사회』의 ‘홀랜드의 집’이라는 공간은 ‘허랜드’와 발음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공화국이라는 설정에서도 흡사하여 영향관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허랜드』를 비롯한 유토피아 소설은 대부분 ‘완벽하고 완전한 사회’의 구현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완전사회』는 ‘안티 유토피아’, 혹은 ‘안티 페미니즘’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완전하지 않은’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토피아의 완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측면을 보여주는 『완전사회』는 유토피아 소설의 계보에 있으면서도 유토피아에 반기를 든다. 인간의

8) 김영한·임지현 편,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1994, 7-8면. 이상사회론 중 유토피아주의 장 참조.

9) 김영한·임지현 편,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1994, 8면.

10) 김영한·임지현 편,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1994, 7-8면.

유토피아를 향한 욕망에는 늘 나와 나의 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타자에 대한 대립적인 관점이 깔려 있음을 꼬집고 있다. 가난한 자는 계급이 없어 지길 희망하고, 차별받던 자는 차별이 없어지고 기준에 차별받던 자들의 지위가 상승하길 바란다. 문윤성은 『완전사회』에서 막상 나의 세계가 중심이 된 세상이 될 때, 과연 이상적인 사회가 펼쳐질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1960년대는 4·19 혁명 이후에 신구 세대의 갈등을 비롯하여 문단에서도 본격적 장르문학이 양분되던 시기였다. 세대갈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이념의 대립도 첨예하게 갈렸다. 이렇게 양분된 대립과 갈등을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유토피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1516)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 유토피아란 원래 어디에도 없는 곳, 살기 좋은 이상향이란 의미이다. 『홍길동전』의 울도국은 이상향, 식민지시기 이광수 『흙』의 살여울은 살기 좋은 곳의 유토피아를 상징한다. 미래로 떠나는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곳이지만, 또한 욕망하는 곳이다. 1965년 문윤성의 『완전사회』는 ‘완전’을 꿈꾸는 유토피아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1960년대 남한 사회가 욕망하는 ‘완전’, ‘건강’, ‘건전’, ‘정상’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표어가 불가능한 것을 끝없이 가능한 것처럼 요구했던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을 역설한다. 완전사회를 지향하는 욕망에는 불완전, 비정상, 불량, 불건전한 것에 끊임없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격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했던 것이다. 문윤성의 『완전사회』는 ‘완전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욕망인지를 그려낸다.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욕망한다는 것의 의미이고,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던 유토피아가 구현되더라도, 또다시 그 안에서 균열과 갈등은 나타나기 마련임을 보여주고 있다. 완전성을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엄격한 계획과 통제로 유지되고, 엄격한 규율과 통제 시스템은 결국 인간의 자유와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¹¹⁾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곳’으로 지금 여기 현실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제도를 추구하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다. 흔히 이상적인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개념과 함께 쓰이지만,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건설하려는 인간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세상이 신이나 자연의 섭리로 눈 앞에 펼쳐지는 낙원과는 차별성을 띤다. 미래사회의 유토피아 ‘건설’이라든가, 지금과는 다른 시스템의 미래사회에 대한 이상을 그리고 있다면 바로 인간의 ‘새로운 제도’를 향한 염원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¹²⁾ 그냥 그곳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 새로 건설해야 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유토피아다. 문윤성이 그리는 유토피아도 ‘상그릴라’로 대표되는 지상낙원이 아니라, 현실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의도가 반영된 유토피아라 할 수 있다. 이숙이 『완전사회』를 ‘정치적 과학소설’¹³⁾이라고 명명한 것은, 유토피아 건설에 담긴 인간의 정치적 제도의 개혁 의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완전사회』의 유토피아 건설의 기본 가설은 제5차 세계대전인 성전쟁으로 남성이 사라진 여인만의 공화국으로 남성 없이도 무수정 임신이 가능하게 된 ‘진성 사회’이다. 1960년대 베트남 파병과 군대의 징집, 그리고 산업사회의 일꾼 동원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건강함을 증명해야 했던 남성들은, 집안에서 육아에 몰두해야 할 여성들이 집 밖으로 진출하는 것에 불만을 품거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1960년대 남한 사회 ‘완전인간’ 대표인 우선구가 바라본 미래 여인공화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유토피아 소설의 전제 조건에는 당대 현실에 대한 부정 혹은 비판이 깔려 있다. 『완전사회』가 발표된 1965년¹⁴⁾ 당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한 주체(남성)

11) 김영한·임지현 편,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1994, 33-34면 참조.

12) 김영한, 「유토피아주의」,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1994, 13-15면 참조.

13) 이숙, 「문윤성의 『완전사회』(1967) 연구- 과학소설로서의 면모와 지배 이데올로기 투영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 52집, 2012, 235면.

14) 『완전사회』의 발표시기를 흔히 1967년으로 표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사회』는 1965년 『주간한국』 추리소설 공모 당선작이다. 1967년 수도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간

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무엇이었으며, 무엇을 염원했던 것인가를 들여다 보고자 한다.

3. 1960년대 미·소 냉전 하의 『완전사회』의 강요된 남성성과 국가의 건강한 신체 기획

1960년대는 미·소 냉전 체제가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1959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미국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식민지개척 경쟁을 하듯 소련과 우주개발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남한은 미소 냉전 체제의 틈바구니에서 미국의 우방으로서, 과학으로 국력을 다져서 선진국 대열로 발돋움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사회 전체가 경쟁 구도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우등생이 되려고 애를 썼다. 1960년대 남한 사회는 대립 구도 속에서 경쟁을 강조하여, 사회에 편입하지 못하는 자들을 낙오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거리의 부랑아, 고아 등의 하층민을 범죄자 계층으로 규정해 나갔으며, 불량도서로 지정된 목록들은 청계천 뒷골목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주간한국』의 추리소설 공모전은 눈길을 끈다. 추리소설을 불량도서로 간주하던 풍토에서 추리소설 공모전의 심사위원들은 조봉연, 정비석 등 문단의 중견들인 점도 아이러니하다.

1960년 4·19 혁명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가르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추리소설이나 과학소설은 장르문학으로 기존 문단에서 설 자리가

행되었고, 후에 1985년 홍사단출판부에서 상, 하 두 권의 『여인공화국』으로 제목을 바꿔서 다시 한번 재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연구자들이나 일반 대중에게 이 작품은 잘 알려지지 않고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SF 붐과 함께 2000년대 이후에야 조금씩 연구되기 시작하다 2018년 아작에서 다시 『완전사회』라는 제목으로 재출간하여 연구자들과 SF 마니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없었다. 추리소설은 불량도서로 분류되었지만, 과학소설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장려하고 전집으로까지 발간되었다. 이청준의 「퇴원」, 김승옥의 「환상수첩」 등 사회의 부적응자를 그리는 소설이 많았으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자, 패배자, 비정상인,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았던 시대라 볼 수 있다. 국가는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을 ‘비정상인’으로 취급하며 표면적으로 합리성을 얻어나갔다. 이렇게 1960년대 사회는 대립과 대립의 연속으로 치닫고 있었고, 문윤성의 『완전사회』는 바로 그 시점에 출간되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극단적 대립의 결과로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고, 전쟁 이후의 미소 냉전 체제 역시 끝나지 않은 이념 전쟁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볼 수 있다.

SF에서의 권위자는 보통 과학자나 발명가이다. 그런데, 『완전사회』에서 미래로의 수면 여행 계획의 실행은 ‘유엔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완전사회』에는 1960년대 미·소 냉전 체제하에서의 남한 사회의 시대적 배경이 깔려 있다. 작품 내에서 3차 세계 전쟁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진영 간의 전쟁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서의 전쟁으로 그린 점, 유엔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한국 전쟁을 겪고 난 이후 남한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투사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¹⁵⁾ 유엔에서 미래로의 수면 여행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거기에 남한의 우선구라는 인간을 선발한 것은, 얼핏 보면 한국이 인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어 국가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류가 멸망했을 때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도록 선택받아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잔인한 결정에 따른 희생자일 뿐이다.

(……) 그러나 이 일이 워낙 거창하여 한두 학술단체 만으로선 힘겹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밀실 제작에만 억대의 자금이 들고 이의 연간 유

15) 이숙, 「문윤성의 『완전사회』(1967) 연구- 과학소설로서의 면모와 지배이데올로기 투영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2, 2012.2, 243-244면 참조.

지비로 2천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 앞에 결국 전 세계의 **철학자와 의사와 공업인**이 힘을 합하기로 하고 끝내는 **유엔의 개입**을 요청하게끔 되었다.¹⁶⁾(12면)

인류의 최후를 장식하기 위해서 실현됐으면 하나, 고귀한 인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실현 안 되기를 바랐을 거라고 추측할 수도 있었다. 디크위크 박사뿐 아니라 이 계획에 가담한 인사들의 심리도 거의 다 그럴지 몰랐다. 하여간 전 세계의 **의사들**은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고 완전인간 색출에 주의를 기울였다.(14면)

미래로의 수면 여행 계획을 주도하는 것은 과학자(발명가)가 아니다. 디크위크 박사도 이학박사나 공학박사가 아니라 ‘의학박사’이다. 과학자 대신 의사와 공업인으로 설정한 부분은 당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과학자보다 의사가 권위를 획득하고 있었고, 중요한 결정권을 권 사람이 의사로 대표된다. 최고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의사는 1960년대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즉 완전인간과 불완전인간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가 우선구를 완전인간으로 규정짓는 권위나 결정권을 부여받게 된 계기는 징병제와 베트남 파병 등으로 개인의 몸에 대한 국가의 규율과 통제가 합리성을 획득한 ‘신체검사’라고 볼 수 있다.¹⁷⁾ 1960년대 의사는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으로 보낼 수도 있었고, 사회적 낙오자로 규정지을 수도 있었다. 의료전문가의 동원을 통해 징병검사 기준이 세분화되고 복잡한 판정 기준으로 바뀌어 향의 불가능한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검사 장소도 징병검사장에서 병원으로 바뀌게 된다.¹⁸⁾ 더불어 국민 전체에 건강 진단이라는 신체검

16) 문윤성, 『완전사회』, 아작, 2018. 이하 이 책의 인용문은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17) 최은경, 「1950-60년대 의료전문가의 동원과 징병검사의 수립」, 『인문과학연구논총』 36(4), 2015.11, 231-258면. 232-235면 참조.

18) 최은경, 「1950-60년대 의료전문가의 동원과 징병검사의 수립」, 『인문과학연구논총』 36(4), 2015.11, 234-235면.

사로 '정상'과 비정상의 잣대를 들이밀게 된다. 체중, 키, 시력 등 완전인간 테스트는 당시 남성들이 신체검사 테스트에서 정상에 속하려는 압박을 받고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미래로의 수면 여행 계획 설계에는 1960년대 당대 결정권을 쥔 힘을 가진 자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 유엔 참전으로 전쟁이 중단되었던 만큼 유엔의 결정권은 1960년대 남한 사회에서 강력했다. 더불어 미소 냉전 체제 아래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주입도 1950년대보다 1960년대 더욱 강화되었다.¹⁹⁾ 반공 이데올로기와 함께 주민등록법의 시행과 신체검사는 산업화를 내세운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고 재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기술자를 인류의 미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완전인간으로 거대하게 포장한 것은, 1965년 당시 베트남 파병에 반대하는 시위 등 국가 재건의 균열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²⁰⁾ 사회 균열의 불안을 잠재우고 신체검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 발전·진보의 포어를 내세운다. 남한 남성인 우선구는 '미스터 유니버스 선발대회'와 같은 신체검사에 대해 반문하면서도 국가, 인류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결심한다. 이런 우선구의 모습은 가정과 국가를 위해 군대에 가고, 전쟁에 참여하는 남성성을 드러낸다. 전쟁에 참여한 영웅과 현재 기술자인 평범하고 비루한 소시민 사이의 괴리는, 미래로 간 여인공화국에서 냉소와 구경거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참지 못하고 폭발한다. 기술자인 자신을 인류의 영웅으로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국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가(인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과학소설을 창작했던 한낙원의 『잃어버린 소년』이나 『우

19) 허윤, 「남자가 없다고 상상해봐」, 『민족문학사연구』 67, 2018.7, 485면. '초남성적 사회와 대중 서사의 길항' 장 참조.

20)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 입국 정책은 1965년 창간된 『학생과학』의 어린이·청소년과 학교교육에서부터 산업일꾼 국민을 만들기 위한 국가 기획으로 장려되고 있었다.

주향로』와 같은 작품에서도 비밀 설계도를 계획하고 우주선을 개발하는 이는 과학자라기보다 ‘기술자’로 묘사된다.²¹⁾ 우선구도 기술자의 한 사람이다. 기술자는 범박하게 말하면 공장 직공이다. 산업화의 신체 건강한 일꾼이 필요했던 1960년대에 신체검사는 군대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시행되었다. 1962년 주민등록법과 함께 신체검사로 건강한 ‘국민’임을 증명해야 했다. 국가의 재건 프로젝트와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는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다가 1964, 1965년 베트남 파병의 반대 시위 등으로 ‘균열’을 빚게 된다.²²⁾ 문윤성의 『완전사회』는 바로 박정희의 재건 프로젝트가 균열을 빚어내던 1965년 발표된 작품이다. 『완전사회』의 건강함의 증명과 선발 과정은 당대 신체검사와 강인한 남성성의 강요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완전사회’ 유토피아는 건강함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과 남성성의 강요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1965년 당시 남성은 이러한 국가 시스템에 항거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해지던 압박과는 달리 안락한 가정에 있으면서 집 밖으로 나가 사회 진출을 피하는 여성에 대한 반감으로 불만을 표출한다.²³⁾ 1960년대 대중잡지의 고개 숙인 남성과 드센 여자의 대립은 이런 사회적 인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1) 1965년 11월 창간된 『학생과학』에는 청소년 독자가 보면서 ‘과학자’ 꿈을 키웠다는 우주과학 소설이나 초인·로봇 소설을 비롯하여 과학대회와 과학기술을 장려하는 공작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자나 기능공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원이나 기능대회 등이 대거 실려 있다. 1960년대 ‘과학자’와 ‘기술자(기능공)’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자와 노동자라는 정반대의 길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익혀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진로(대학으로 진학하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느냐의 차이)였다고 볼 수 있다.

22) 정미지, 「1960년대 국가주의적 남성성과 젠더 표상」, 『우리문학연구』 43, 2014.7, (682-684면 참조.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파병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경제개발의 강력한 추진력을 얻다가 전쟁에 참여한 사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쟁의 이면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는 근대화 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가부장제의 균열’이 일던 시기였다고 한다.

23) 허윤, 「남자가 없다고 상상해봐」, 『민족문학사연구』 67, 2018.7, 485면. ‘초남성적 사회와 대중 서사의 길항’ 장에서 대중문화의 향유층이 중산층 남성으로 대중문화를 여성화하여 자신의 욕망을 은폐하려 했다고 한다.

순건 공업 주식회사의 의무 실장으로 있는 김정원 박사는 종업원 진단 카드를 뒤적이다가 그중 한 장에 시선을 멈췄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주에 3천여 명 전체 종업원의 일제 건강 진단을 한 바 있었다. 3천 장이 넘는 카드를 정리하다가 의사는 약간 색다른 숫자를 발견했다. 신장 175센티미터, 흉곽 87센티, 체중 70킬로그램, 시력 좌우 2.0, 기타 청각 기능, 치아, 호흡량, 손아귀 힘, 팔걸이 힘수 등등에 나타난 기록은 이 사람의 체격이 표준형이며 전체 조직이 우수하고 과거에도 아무런 질병이 없었음을 표시하고 있었다. 카드의 주인공은 ‘우선구, 남자 27세.’ 자재과 직원이었다.(14-15면)

완전인간으로 선발된 자는 유엔 가입국이 아닌 한국전쟁으로 분단된 남한의 우선구였다. 그는 순건 공업 주식회사의 자재과 평직원이었다. 행정, 사법 고등 고시에 패스하고 자재과 평직원으로 제철 원료에 관한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력이 모순투성이다. 평범한 공장 직공을 갑자기 완전인간으로 둔갑시킨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완전인간이 되면 유엔에서 과학 실험체로 쓸지 모른다고도 하던데”라며 사장이 불러서 전하는 말에는 표본이나 건강체, 완전인간이라는 진단은 위로부터의 ‘기획’을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 자기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불량식품을 골라내듯 우성인자를 선별하는 과정은 유럽인이 아시아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투영되어서 불편하다. 유엔은 가입국 중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완전인간을 선발하지 않고, 남한의 우선구를 택한다. 지금도 우주선에 탑승하는 자를 선발하지만, 가족과 떨어지는 데다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에, 선뜻 선택하기를 주저한다. 선진국이 아닌 작은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완전인간을 택한 것은 ‘실험대상’으로 선택한 것과 다름없었다. ‘완전인간’이라고 그럴싸한 포장을 내두른 것도 1960년대 위선과 기만 통치의 일단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보낸 자료를 믿지 못하고 다시 귀국하여 진단에 사용된 기구를 검토하고 확인 검사를 치른 후, “완전인간 확인”이

라는 승인을 찍는 과정은 흡사 미국에서 물건을 납품할 때 품질 보증을 받는 과정을 연상시킨다. 미국이나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만 수출도 수입도 할 수 있었던 시대에, 완전인간이라는 유엔의 확인은 제품에 찍힌 품질 마크 도장과도 같았다. 1960년대 과학소설에서 미국의 우주선, 혹은 우주개척에 합류하거나 함께 탑승하거나 탑승자로 선발된 소년을 종종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나 유엔의 계획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험대상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몸을 국가가 기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합법화된 규율로 강화하는 데에 ‘신체검사’는 적절한 판정 기준이 되어 주었다. 1960~1970년대 신체검사는 질병검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실시되어 비위생적인 것을 색출해 내듯 미개한 이미지로 각인시킨다. 교실에서 남녀가 한 장소에서 팬티만 입은 채 옷을 다 벗고 있는 사진은 지금 보면 불편하고 불쾌하다. 이런 당시의 신체검사는 우선구의 선발과정에서도 우량과 불량 of 제품 품질을 점검하는 듯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인종을 마치 품질 검사라도 하듯 완전인간 확인 절차를 마치는 과정은 불편하다. 당시 열렸던 유니버스 대회에서도 아시아 인종은 키가 작아서 혹은 비율이 적어서 늘 뽑히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그런 아시아인에게 완전인간이라는 명명은 반어법처럼 어울리지 않거나 혹은 조롱처럼 들리기도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남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한편, 국내에서도 ‘완전’, ‘정상’, ‘우수’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사회로부터 내려오던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건강검진은 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각 개인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쓰이고 있었다고 보인다. 비정상인, 정신이상자,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 등을 구분해 내는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활용하고 있었다.

완전인간 우선구를 선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되자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라도 보내시렵니까?”라는 우선구의 질문 역시 당대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의 ‘몸’ 프로젝트를 연상시킨다. 미스 유니버스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펼치면서, 미래로의 수면 여행 모험에서의 완전인간은 남성인 우선구를 선정하고 있다. 미래로의 여행에서의 건강한 신체를 검증받고 모험에 참여하는 사람은 남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대립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작가 문윤성은 『완전사회』 곳곳에 대립된 사회 인식을 배치해 놓고 있다. 남성의 눈으로 바라본 여성 사회라는 것도 전략적인 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성에게는 완전인간을 요구하고, 여성이 추구하는 완전사회를 바라는 모순된 심리의 충돌은 결국 완전사회가 완전하지 않은 사회임을 드러내는 역설로 보여주고 있다.

당대 남성에게 가해지던 남성성의 요구, 신체적 조건 등에 부과되던 무거운 짐과 의무감에 대한 반발은 명량한 여성과의 대립으로 이어진다.²⁴⁾ 합격과 불합격 판정, 건강한 남자임을 증명받아야 하는 신체검사가 군대 징집을 위한 동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신체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남성은 정말 어디가 불량하고 쓸모없고 볼품없는 남자로 취급되었다. 1965년 발표된 『완전사회』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베트남 파병전 신체검사의 적합 판정을 기다리는 초조한 한국 남성의 모습이다. 완전인간 우선구가 미래사회에서 직면한 여인공화국은 남성에게 가해지던 신체의 억압과 통제와 관리가 ‘여성의 몸’으로 바뀌어서 되풀이되고 있었다.

4. 완전인간 우선구의 염원과 미래 여인공화국의 유토피아 지향

문윤성의 『완전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남성성의 강요로 인한 부담으로 남녀가 대립하던 1960년대에 남성은 화성으로 쫓겨나고 여인들만

24) 최애순, 「50년대 『아리랑』 잡지의 ‘명량’과 ‘탐정’ 코드」, 『현대소설연구』 제47호, 2011.8, 377-380면 참조. 엄치시하의 소심한 남자 이야기에서부터 왈패, 왈가닥, 드센 여자 등의 명량 가정 이데올로기 부분 참조.

사는 공화국을 건설한다. 문윤성은 ‘완전사회’를 통해 유토피아를 지향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요소는 어느 사회에나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던져준다. 그는 1960년대 남한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요소는 어느 한쪽을 배제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적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1960년대 문윤성이 유토피아의 균열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에 던진 메시지와 문제제기는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현실의 더 큰 대립과 갈등에 묻히고 말았다. 2020년 이후 우리 사회는 남녀의 대립과 갈등, 빈부의 대립과 갈등, 정치적 대립과 갈등 등 곳곳에서 반목하는 현상에 직면해 있다. 1960년대 일종의 알레고리로서의 문윤성이 그린 ‘완전사회’의 의미를 짚어보면서 당대 사회가 얼마나 대립하고 있었는지를 따라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유토피아의 지향은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완전사회』에서 미래의 여인공화국을 건설하는 주체는 유엔을 주축으로 한 남성이다. 또한 미래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자 모험의 주체도 남성인 우선구이다. 완전사회는 남성이 주체가 되어 건설한 여인공화국이라는 면에서 이미 모순과 충돌을 야기한다.

문윤성의 『완전사회』는 건전한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로 인해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조장되던 1960년대 갈등과 대립의 요소를 배제하는 가설을 세운다. 가장 극렬하게 양분된 남성과 여성의 대립을 예로 들어, 남성이 사라진 여성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여인들만의 나라를 건설하는 유토피아는 『완전사회』 이전부터 종종 꿈꾸어 오던 유토피아의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이다. 남성과 여성의 대립과 차별에서 페미니즘은 오랜 기간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서 야기되는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문제를 다루어 왔다. 1960년대 미국의 급진적 페미니즘의 출현은 남녀의 대립을 부각시켰다.²⁵⁾ 1960년대 국내에서도 남성들에게 부과된 과한 군대 징집의 강인한 남성성의 요구와 여성의 가정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구가 충돌

했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 갈등의 고민 결과 161년 후 미래사회에서 남성 없이도 임신이 가능한 여인공화국이 건설된다. 샬롯 퍼킨스의 『허랜드』²⁶⁾는 미국의 가부장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여성들만 사는 나라인 허랜드를 꿈꾸었다. 유토피아에 대한 욕망과 급진적 페미니즘의 등장이 함께 맞물려서 여인들만의 나라를 건설하는 욕망이 분출되었다. 『완전사회』가 쓰여지던 1965년은 여러 대중매체에 가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이 등장하던 시기로, 남성에게는 더 남성성이 요구되고 반면에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이 일었던 때다. 가부장제에 반기를 들고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들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임신, 출산, 육아에 얽매인 가정이라는 틀로부터 기인한다고 여겼다.

우선구의 눈에 비친 여인공화국은 우선구 자신이 마치 동물원 원숭이 처럼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 기분 나쁘고 불편하다. 진성사회로 '헤어지구' 정부를 형성하여 세계가 통일 정부가 된 미래 여인공화국은 우선구가 보기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마음대로 보거나 들을 수 없고, 도서관 이용도 제약을 받는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큰 '감옥'에 다름 아니다. 세계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통일 정부로 구성된다는 발상은 웰스의 유토피아 '사회개혁안'을 연상시킨다. 『완전사회』는 1960년대 미국 급진적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발상의 근원은 1920년대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유토피아 담론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²⁷⁾ 식민지시기 경성고보를 퇴학당하고 노동자의 삶을 살았

25) 김보명, 「급진-문화 페미니즘과 트랜스-퀴어 정치학 사이」, 『페미니즘 연구』 제18권 1호, 2018.4, 233-234면 참조.

26) 샬롯 퍼킨스의 『허랜드』의 여러 모티프들이 문윤성의 『완전사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27) 손종업은 『완전사회』가 여러모로 H.G. 웰스의 『타임머신』(1895)의 영향 속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손종업, 「문윤성의 『완전사회』와 미래의 건축술」, 『어문논집』 제 60집, 2014.12, 254-257면 참조)

던 문윤성은 1920년대 국내에 수용된 웰스나 사회주의 유토피아 담론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와 타자로 대립된 세계는 정상과 비정상을 격리하고, 거리의 부랑아와 고아, 정신병자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등의 사회적 격리 시스템을 낳는다. 『완전사회』에서 화성으로의 남성 축출은 나병 환자를 오이도에 감금하거나 통제하는 1960년대 격리 시스템의 연장이며 비유이다. 타자를 배제하고 격리함으로써 오몰이 묻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우리만의 평화가 올 것이라 기대하는 어리석음과 무지를 경고하고 있다. 미래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설계와는 달리, 과거에서 온 우선구는 화성의 외계인 같은 낯선 타자일 뿐이다. 고전 문화 번역원을 통해 과거 전통과 현재대(작품안의 여인공화국)의 차이, 여성문화와 진성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며 현재대의 역사를 설명하나, 우선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고 불편할 뿐이다. 과거 세대가 누렸던 영광의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왔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 세대 대립의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다.

현 사회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미래 유토피아 건설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가 재건의 의지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립적 지양을 탈피하고 통합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작품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립 논쟁에서 남한 사회의 대립 구도가 극명하게 표출된다. 1987년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가 나오기까지 유일하게 성인 문학의 SF를 담당했던 『완전사회』는 미래의 완전하지 않은 사회를 통해 극단적인 페미니즘, 극단적인 미소 냉전 체제 등에 대한 불안과 경계의 목소리를 뿜어내고 있다. 본격문학에서 밀려난 과학소설의 대안으로 복거일이 ‘역사’(리얼리즘)를 내세워 ‘대체역사’를 가져온 것도 본격문학과 장르문학, 리얼리즘과 환상문학과 대립 전쟁에서 나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시도한 것이었다.²⁸⁾

28) 최애순, 「대체역사의 국내 수용 양상-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가 탄생하기까지」, 『우리문학연구』 제61집, 2019.1, 395-427면 참조.

『완전사회』는 남성 작가의 시선으로 온전히 여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에 대한 간접적인 질문과 답변을 제공한다.²⁹⁾ ‘완전인간’은 우선구리는 남성을 택하였는데, 후에 남은 인간들은 모두 여성이며 완전사회는 여성들의 나라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왜 처음부터 여성을 완전인간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 신체의 강인감, 건강한 신체의 상징,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남성이어야만 하는 1960년대 강요된 남성성의 이데올로기가 돌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³⁰⁾ 미래사회를 여성으로 제시하면서도 (신체적) 완전인간으로 여성을 내세운다는 것은 전쟁 뒤 분단 상황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먼 미래를 상정하고서야 여성이 남성 없이도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공상을 할 수 있었다. 그만큼 한국전쟁을 겪고 국가가 재건을 앞세우던 시기에 건강한 신체, 군대, 강인한 남성성의 상징은 국가 기획에서 중요했던 것이다.³¹⁾ 1964년 베트남전 과병을 위한 신체 건강한 남성을 선발하는 방식과 우선구를 미래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해 선발하는 과정은 흡사한 면들이 있다. 모험의 주체를 남성인 우선구를 선택하였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여인공화국은 모순을 전제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문윤성은 161년 후의 미래 여인공화국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1960년대 현실에서 남성의 건강한 신체의 증명에 대한 부담과 가중된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1960년대 군대에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산업사회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사회에 항변할 수 없었던 심리를, 여성에 대한 반감으로 바꾸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여성의 몸을 남성처럼 국가가 통제하

29) 샬롯 퍼킨스 길먼의 『허랜드』는 문윤성의 『완전사회』보다 이상적으로 그려진다. 그것은 여성 작가와 남성 작가의 시선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30) 정미지, 「1960년대 국가주의적 남성성과 젠더 표상」, 『우리문학연구』 43, 2014.7, 682-683면 참조.

31) 허윤, 「남자가 없다고 상상해봐. 1960년대 초남성적 사회의 거울상으로서 『완전사회』」, 『민족문학사연구』 67, 2018.7, 483-509면 참조.

고 관리하게 된다면 수용하겠는가라고 물어온 것일 수도 있다. 사회에 마음껏 불만을 터트리지 못하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대상을 여성으로 돌려놓고 억압되고 억눌린 감정을 분출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남성성의 남성들의 억압과 스트레스는, 사회/국가에 대립하고 항거해야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집 밖으로 진출하려는 여성에 반대하고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선구는 건강함의 증명을 받고 인류의 대표라는 사명을 띤 자신에게 미래 여인들이 가하던 조롱과 소홀한 대접에 이러려고 내가 가족도 포기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하고 회의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런 우선구의 심정은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와 영웅 대접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보잘것없는 처지와 대우에 화살을 여성에게로 돌려서 드센 여성들에 대한 반감을 은연중에 표출한 것일 수 있다.

5. 완전사회 여인공화국의 신체 통제와 유토피아의 균열

페미니즘 유토피아의 오랜 기원에는 여성이 남성과 차별되는 요인을 임신과 출산으로 꼽고 있다. 남성이 없어도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진성선언’은 여성의 자기 몸의 자유와 권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진성선언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남성 없이 임신할 수 있다’란 의미이다. 모든 남녀차별의 시작으로 여성에게 인식되는 ‘임신을 거부하는 여성’은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져서 급기야 월경(생리)를 거부하기에 이른다. 문윤성의 『완전사회』는 앞으로의 미래사회에 돌연 여성이 진성선언을 할 날이 올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대표적 작품인 『허랜드』를 상기해보면, 처녀생식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이 빛을 보듯 어느 순간 처녀생식이 가능한 기원이 되는 ‘어머니’ 여

성의 등장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페미니즘 유토피아 소설에서는 남녀 대립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으로 꼽고 있는 임신, 출산의 문제에 대해 절실하게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남성/여성의 성의 구별을 넘어서서 더 근원적인 ‘여성의 몸’으로부터의 자유나 임신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처녀생식이 가능한 몸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허랜드』의 염원과 달리, 『완전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무수정생식, 단성생식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도 남성이 없는 사회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며, 남아 있던 남성이 모두 트랜스젠더한 듯한 묘사를 보여준다. 『완전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으로부터의 차별에서 벗어나 대립과 갈등이 사라져서 유토피아가 도래해야 하는데, 세상은 또다시 대립과 갈등으로 반목한다. 바로 ‘성’적 욕망의 해결 방식을 놓고 국가가 인정한 합법적인 집단 홀랜과 비합법적인 소위 동성애 모임인 께브가 대립하게 된다. 『완전사회』는 여인공화국이라는 미래 유토피아 사회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전쟁에서 여성이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여인공화국으로 새로운 세상을 마련한 곳에서는 동성애,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인식 등 성적 취향에 의해 대립하는 사회에 직면하게 된다. 여성의 몸으로부터의 해방, 임신 출산으로부터의 억압과 해방을 누린 세상에서 또다시 ‘몸’을 국가에 의해 통제받고 관리받게 되는 아이러니를 맞이한다.

여인들만의 ‘완전사회’에 대한 욕망은 남한 사회에서는 정신분석의 도입과 함께 여인들의 성적 욕망을 분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여성의 몸은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있었고, 임신과 출산에 기여하지 않는 쾌락을 위한 여성의 성적 욕망은 더럽고 불건전하고 퇴폐적인 것으로 죄악시되었다. 1960년대 본격적으로 도입된 정신분석은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 이외에 성적 욕망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성적 욕망은 금기시되어 왔다. 여성의 성은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기능할 때 건강한 것이고, 쾌락을 추구할 때는 불건전하고 타락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미래

여인들의 공화국에서도 금기시된 성적 욕망의 경계를 깨고 해소하는 방식의 차이로 사회는 대립과 갈등을 겪게 된다. 우선구는 이렇게 대립과 갈등을 겪는 여인공화국에 대해 “사회 불안의 제거 없이 참된 행복은 있을 수 없다”(416면)라고 말해주고 싶어 한다. 우선구의 시각이나 여인들의 시각이나 모두 유토피아의 지향을 위해서 사회 갈등과 불안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인들이 내세운 것은 남성의 제거이고, 남성의 제거를 통해서도 계속 남아 있는 사회 불안과 대립을 보면서도 우선구는 이 불안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두 대립된 관점의 양집단이 유토피아의 건설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유토피아 공화국에서는 범죄를 저질러서 아주 혹독한 사회적 대우를 받는 노예가 있다. 힘들고 가혹한 일은 모두 노예가 하고, 육아는 여성이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유토피아 공화국이 더할 나위 없는 이상사회라 여기며 시스템을 작동한다. 계급과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가. 『완전사회』는 바로 대립된 두 시각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지향하는 유토피아가 완전하지 않음을, 이미 균열을 예고한 상태에서 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완전사회』의 여인들만의 유토피아는 또다시 대립과 갈등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기존의 여인공화국을 내세웠던 유토피아 소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여인들만의 공화국인 미래 완전사회에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의무가 사라지고 의무를 가하던 남성이 사라짐으로써 평화가 찾아올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홀랜과 껌브의 대립으로 사회는 또다시 양분되어 전쟁을 방불케 한다.

“우리는 일체의 낡은 관념과 그 위에 설정된 모든 제도를 무시한다. 개인의 인생관으로부터 부부의 개념, 가족 제도, 법률, 사상, 사회 조직에 이르는 온갖 낡은 것은 근본적으로 파괴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

우리가 진실로 만물의 영장이 될 때는 왔다. 참된 생활, 복된 사회를 건설할 때가 왔다. 우리는 과감하게 성의 모순과 대립을 타파해야 한다. 우리는 엄숙히 선언하노라. 우리는 영원히 참되고 아름다운 사회와 역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남성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이후 우리 여성은 상대성의 입장이 아니라 인류 유일의 참된 모습으로서 존재한다.”(174-175면)

바뀌 말하면 여자는 남자 없이도 임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험진 박사는 자기 이론에 따라 몇 개의 무정난자를 인체가 아닌 인공 자궁소에서 완전한 태아로 발육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대신 태아는 전부 여자였다. 험진 박사는 이렇게 탄생하는 영아는 기본 모체의 분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성은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험진 학설이 발표되자 전 세계 여론은 분분하였다.(178면)

남성 없이도 무수정 임신이 가능하고 출산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여인 공화국 시대가 도래한다. 여성에게는 그야말로 유토피아라 할 수 있다. 성의 모순과 대립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와 역사를 건설하기 위해 여인들이 택한 방식은 모든 분야에 걸쳐 남성의 존재를 부인하고 제거하는 것이었다. 유토피아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전제로 그 갈등 요소를 배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구현된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임신과 출산 문제에서 비롯된 남성과의 차별과 대립이 현실의 가장 큰 불만이었으므로, 남성을 제거하고 임신이 가능한 사회를 건설한다. 토머스 모어로부터 형성된 유토피아의 개념에는 현실의 불만, 정치적 제도의 건설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건설한 유토피아는 사회제도 전반의 개혁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유지를 위해 '독재'와 흡사한 감시와 통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유토피아의 지향이 종종 디스토피아로 귀결되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이다.

유토피아란 결국 토머스 모어가 몇 세기 전에 언급했듯이 '어디에도 없

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뿐이다. 이청준의 『이어도』처럼 죽어서야 갈 수 있는 곳이므로 그야말로 판타지, 이상향일 뿐이다. 현실에서 설립하려 했던 이상사회는 결국 '당신들의 천국'에 그칠 뿐인 반쪽짜리 세상일 뿐이다. 누군가의 의지나 추구가 있다면, 그 안에는 늘 포함되지 않고 배제되고 삭제된 다른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문윤성의 여인공화국에서는 화성으로 쫓겨난 남성이 있고, 국가의 홀랜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여 껌브를 형성한 집단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였습니다. 껌브는 차츰 창궐 일로에 있습니다. 그 폐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껌브 상습자들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 변화를 일으켜 수동자를 지배, 억압, 애무로써 대하고, 수동자는 굴복, 인내, 자학을 스스로 취하는 형편입니다. 이들은 유유상종으로 끼리끼리 모여 집단적으로 공공연히 홀랜법을 유린하고 심지어는 과거의 웅성시대를 동경하는 탈선행위까지 저지르는 것입니다.(384면)

귀하는 혹 웅성시대를 동경한다니까 회고감에 젖을지도 모르나 귀하가 웅성일지라도 저들 껌브 도당들을 결코 용납하지는 않으리라 본관은 믿습니다. 귀하는 웅성인인 동시에 훌륭한 이성인(理性人)이시니까요.(384면)/ (……) 드디어 세계 정부는 '껌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효과였습니다. 그들은 음성적 형태에서 감히 양성화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세력은 늘어난 겁니다.(384면)

여기에 곁들여 두버무 소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버무'란 일체의 성행위를 거부하는 위시두를 말하는 겁니다. 껌브고 홀랜이고 성행위는 모조리 거부한다는 과격파입니다. 반동 세력 껌브에 대한 반동의 반동인 두버무주의자들은 '인간에 있어서 성이 있는 한 모순은 근절되지 않는다'라는 표어 아래 스스로 성수술을 받아 성호르몬과 수란관(輸卵管)을 제거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면 껌브가 안 되긴 하지만 후생은 단절되고 마는 거죠.(384면)

용성일지라도 깨브주의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선언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대립과 갈등에서 동성애자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을 대변하는 것이다. 홀랜주의자와 깨브주의자의 대립 속에서 극단적인 ‘두버무’가 출현하게 된다. ‘두버무’는 현대 사회에서 남녀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임신을 거부하고 월경을 하지 않겠다’³²⁾고 선언하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의 출현과 맞닿아 있다. 1965년 문윤성이 진단한 사회의 대립과 갈등은 2020년대 이후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여인공화국 안에도 위계질서가 있고, 위계질서를 유지하려는 사회 시스템은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억압하는 통제와 감시가 된다. 우선구가 소설 내 문학공모전에서 당선한 〈미래전쟁〉은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의 대립으로 사회가 둘로 나뉘어 전쟁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끊임없이 나와 타자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세상은 유토피아의 한계이기도 하다.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방식을 택하여, 특정 누군가를 위한 사회개혁을 감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래사회로 오기 전 우선구가 받았던 신체검사로 국가에 건강함을 증명하던 것은, 여인공화국에서 여인의 성행위를 ‘홀렌’이라는 법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지향했던 유토피아는 그 안에서 또 균열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토피아의 균열은 남성 우선구가 여성들에게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완전사회』는 1960년대 대립 사회에서 유토피아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유토피아 소설’의 계보에 놓인다. 그러나 여인공화국이 진정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불완전한 독재 시스템으로 성적 욕망을 국가가 통제하는 최악의 법으로 유지되는 사회라는 디스토피아적 시선을 드러낸다는

32) https://www.ildaro.com/sub_read.html?uid=7630§ion=sc8 하리타, 「월경을 소외시킨 사회, 월경과 반목하는 여성들-〈29살, 섹슈얼리티 중간정산〉 독일에서 몸해방 프로젝트⑤」, 『일다』, 2016/10/18 기사입력.

점에서 유토피아가 모든 이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³³⁾ 따라서 『완전사회』를 유토피아를 제대로 그렸거나 제대로 그리지 않았거나 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완전사회』(분량만으로도 방대하다)를 너무 소략하게 다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완전사회』는 유토피아가 누군가의 욕망이나 정치적 의도를 담보로 또 다른 누군가의 욕망은 배제한 채 건설된다는 의미에서, 이미 균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본질을 안고 있음을 짚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6. 결론: 유토피아의 현실비판과 인간의 사회개혁 의지

문운성은 〈아름다운 다도해〉, 〈낙원의 별〉 등의 유토피아에 관한 소설을 이후에도 더 쓴다. 그러나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은 결국 늘 불가능으로 결론이 나버려서 대립 사회의 대안을 찾으려던 노력이 물거품으로 된다. 1960년대 피안의 섬을 찾아 떠났던 이청준의 『이어도』는 현실에서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죽어야만 비로소 갈 수 있다. 1960년대 완전사회를 추구하려 했던 문운성에 이어, 1970년대도 나름대로 이상향을 현실에서 찾아보려고 시도하거나 혹은 이상사회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감행되었다. 그러나 유토피아가 늘 그렇듯, 그것을 구축하려 한 인간의 개별 욕망이 깃들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귀결에 도달하곤 한다. 문운성의 『완전사회』는 한국문학의 흐름에서 해방 후 유토피아를 구현하려고 시도한 작품으로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유토피아가 특정 누군가의 욕망을 전제로 하는 한 완전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자각을 일깨워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이상적인 곳을 지향하던 욕망은 현실에서

33) 김영한·임지현 편,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1994, 34면 참조.

‘당신들의 천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유토피아의 실현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함을 깨달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유토피아란 모든 계층,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미래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누군가에게만 국한된다는 면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도 여전히 ‘노예’가 있다. 그 ‘노예’들은 과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이상사회라고 생각할까. 유토피아가 구현되더라도 또 다른 격리와 통제, 감시로 인한 사회 계층(지위, 성 등)의 경계와 대립의 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모순과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완전사회』에서도 지도층이 있고 수직적인 권력 관계가 조직된 이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와 감시가 또 다른 억압을 낳을 수밖에 없다. 홀랜과 게브의 대립은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반체제혁명으로 치닫는다. 그러나 충족되지 않은 욕망은 그곳에서 또 다른 유토피아를 꿈꾸게 한다. 현실에 없는 곳을 알지만, 현실에 대한 불만을 담아 염원하는 세계의 지향은 ‘인간의 의지’의 굳건함을 증명해 준다. 현실을 이대로 두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는 인간의 의지는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미래’ 지향이기 때문이다.

유토피아 소설은 늘 그렇듯 현실비판이나 현실부정을 딛고 탄생한다. 문윤성의 『완전사회』는 당대 1960년대 사회가 얼마나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았는지를 보여준다. 미래의 유토피아를 통해 현실의 대립이 얼마나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알레고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 갈등과 대립의 요소를 제거한 유토피아 공화국을 꿈꾼다. 인류가 바라는 이상사회가 특정 누군가 혹은 특정 계급 혹은 특정 성에만 국한된 ‘당신들의 천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을 배제한 유토피아로는 한계가 있다. ‘어디에도 없는’ 곳이 아니라, 현실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한 성이 사라지거나 더 나아가 인류의 종말(죽음)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사회』라는 작품이 문단에 등장하자마자 이 작품의 새롭고 낯선 기법이 신기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본격 문단이 아닌 『주간한국』이라는 대중잡지의 공모로 등단한 이력부터가 기존 문인들과 차별화된다. 1960년대는 리얼리즘 논쟁으로 뜨거웠지만, 한편으로 기존의 리얼리즘에 반하는 환상성을 띤 문학이 주목을 끌기도 했다. 김승옥, 이재하, 박상룡 등의 기존 문단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독법의 소설이 이 시기에 창작되었던 것이다. 과학소설의 기본 속성이 현실에 대한 반기 혹은 새로운 제안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완전사회』 역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이 작품에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읽어내기도 하고, 혹자는 이 작품에서 안티-페미니즘을 읽어내기도 한다. 한 작품에서 서로 모순되고 양립되는 해석이 나와서 충돌을 빚어내고 있다. 그러한 해석의 대립적 갈림이 바로 『완전사회』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이며 경고이다. 그리고 그 현실의 모순과 대립 때문에 인간은 기존 현실을 뒤엎고 새로운 제도로 개혁하는 유토피아를 지향하게 된다.

| 참고문헌 |

- 김보명, 「급진-문화 페미니즘과 트랜스-퀴어 정치학 사이- 1960년대 이후 미국 여성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8(1), 2018.4, 229-265면.
- 김영한·임지현 편,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1994.
- 모희준, 「냉전시기 한국 창작 과학소설에 나타난 종말의식 고찰- 한낙원의 『잃어버린 소년』, 『금성탐험대』와 문윤성의 『완전사회』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5, 2016.3, 127-144면.
- 복도훈, 「변증법적 유토피아 서사의 교훈- 어슬러 K. 르킨의 『빼앗긴 자들』(1975)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30), 2020.12, 227-248면.
- 복도훈, 「단 한 명의 남자와 모든 여자: 아마겟돈 이후의 유토피아와 섹슈얼리티」, 『한국근대문학연구』 24, 2011.10, 345-373면.
- 손나경, 「과학소설의 서사적 추진력: 『완전사회』의 대안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제 9권 제 6호, 2019, 130-139면.
- 손중엽, 「문윤성의 『완전사회』와 미래의 건축술」, 『어문논집』 제60집, 2014.12, 239-263면.
- 이경란, 「70년대 미국 여성작가 SF 유토피아 전망의 모호성과 개방성: 어슬러 르 킨의 『빼앗긴 자들』과 마지 피어시의 『시간의 경계에 선 여자』」, 『영미연구』 제49집, 2020, 3-30면.
- 이숙, 「문윤성의 『완전사회』(1967) 연구- 과학소설로서의 면모와 지배이데올로기 투영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2, 2012.2, 225-253면.
- 이정옥,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로 떠난 모험 여행의 서사: 문윤성의 『완전사회』론」,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139-164면.
- 이하나, 「1950-1960년대 재건 담론의 의미와 지향」, 『동방학지』 제151집, 2010.9, 387-431면.
- 정미지, 「1960년대 국가주의적 남성성과 젠더 표상」, 『우리문학연구』43, 2014.7, 681-709면.
- 주민재, 「과학적 상상력이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 문윤성의 『완전사회』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7집, 2020.9, 139-167면.
- 최병구, 「포스트 휴먼의 세 가지 조건: 테크놀로지·젠더·정동- 문윤성, 『완전사회』(1967)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89집, 2020.9, 147-174면.
- 최애순, 「1920년대 미래과학소설의 사회구조의 전환과 미래에 대한 기대- 『팔십만년 후의 사회』, 『이상의 신사회』, 『이상촌』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41,

2020.상반기, 7-51면.

최애순, 「대체역사의 국내 수용 양상-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가 탄생하기까지」, 『우리문학연구』 제61집, 2019.1, 395-427면.

허윤, 「남자가 없다고 상상해봐- 1960년대 초남성적 사회의 거울상으로서 『완전사회』」, 『민족문학사연구』 67, 2018.7, 483-509면.

<Abstract>

The Orientation and Crack of Utopia in the 1960s, *Perfect Society*

Choi, Ae-Soon

Perfect Society functions as a product of a debate that reveals the desire to preoccupy the title of 'first' among researchers, rather than the aspect that it is fun to read by readers of science fiction. It can be seen as a product and representation of a process that was caught in the midst of the confrontational debate between full-fledged literature and genre literature, adult literature and children's and youth literature in the 1960s. Independent of the content of the work, *Perfect Society* can be seen as a testament to the confrontational society of South Korea in the 1960s in itself as it is caught up in the controversy over the 'real' or 'first' that the work itself evoked. If *Kim Ji-Young Born in 1982* represented an era through the feminist discourse surrounding this novel rather than the content of the novel, *Perfect Society* also confronted the 1960s through the full-scale and first controversy surrounding this novel, science fiction and feminist discourse. It can be said that it showed an old-fashioned society.

Through the confrontational debate surrounding this work and the future confrontational society presented in the work, *Perfect Society* indirectly shows how our society in the 1960s was occupied with dichotomous oppositional structures such as normal and abnormal, health and infirmity, and good and bad. In particula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Perfect Society* in the history of Korean science fiction burns

down how strong the dichotomy between authentic literature and popular literature (genre literature) has been since liberation. The emergence of creative science fiction in Korea after Moon Yun-seong's *Perfect Society* had to wait a long time until Bok Go-il's alternative historical novel *In Search of the Epitaph*. Unlike Bok Go-il's *In Search of the Epitaph*, which aroused interest in the paragraph as soon as it was published despite its unfamiliar reading method, Yunseong Moon's *Perfect Society* is not mentioned in the paragraph at all. As such, *Perfect Society* proves the point of conflict and conflict that was prevalent in the society of the time by showing the opposition between the full-fledged literary and genre literature as a work itself.

In this paper, we see that the elements of opposition and conflict that prevailed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re fully revealed in the work, and through it, we try to show that utopia, which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method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is also not a solution. Utopia novels, as always, are born by overcoming criticism or denial of reality. However, in that the Republic of Women is not a true utopia, but a dystopian society in which sexual desire is maintained as the worst law governed by the state through an imperfect dictatorship system, it can be seen that utopia does not bring happiness to everyone. *Perfect Society* is meaningful in that it points out that a utopia already has an inherent nature that can only be broken in the sense that it is built with someone's desire or political intention as collateral and excluding someone else's desire.

Key words: *Perfect Society*, Ideal Society, Future, Utopia, Women's Republic, Physical Examination, Body, Control, Social Confrontation

투 고 일: 2021년 9월 1일

심 사 일: 2021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9월 24일